

#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김복순\*

## I. 머리말

비정규직의 정확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방법과 정의를 둘러싼 논쟁이 여전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비정규직이 경제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에는 전체 근로자의 36.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로 이어져 비정규직 보호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인력조정이 용이하고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활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비정규근로자는 임금차별, 고용불안정성, 4대 사회보험 비적용 등 많은 부문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과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성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동일한 생산성 아래 고용형태에 따라 상이한 가격이 지급되고 있다면 단순히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만약 자격과 조건 등 동일한 특성을 가진 근로자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에 따라 불합리한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정책적으로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고의 분석을 위해 노동부가 2004년 정규·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실태를 파악하여 법적인 보호대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사업체근로실태조사」는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규·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외국인근로자, 독립도급종사자, 재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사업체패널팀 연구원(seesaram@kli.re.kr).

택가내근무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시대체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근로조건 등의 정보를 조사한 자료이다.1) 이를 토대로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분포와 임금수준을 살펴본 후 정규-비정규근로간의 임금격차를 계산하여 이를 분해하고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분포

<표 1>를 통해 조사대상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분포를 보면, 임금근로자 10,157천명

<표 1>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분포

(단위 : 천명, %)

	사업체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전 체	남 자	여 자	근로자수
전 체	10,157 (100.0)	6,203 (100.0)	3,953 (100.0)	14,584 (100.0)
정규근로자	7,541 ( 74.2)	5,033 ( 81.1)	2,508 ( 63.4)	9,190 ( 63.0)
소 계	2,616 ( 25.8)	1,170 ( 18.9)	1,445 ( 36.6)	5,394 ( 37.0)
외국인근로자	163 ( 6.2)	107 ( 9.1)	55 ( 3.9)	-
독립도급종사자	453 ( 17.3)	127 ( 10.9)	325 ( 22.5)	711 ( 4.9)
비 정 규 근 로 자	8 ( 0.3)	1 ( 0.2)	6 ( 0.4)	171 ( 1.2)
재택/가내근무자	39 ( 1.5)	13 ( 1.2)	25 ( 1.7)	117 ( 0.8)
파견근로자	211 ( 8.1)	125 ( 10.7)	86 ( 6.0)	413 ( 2.8)
용역근로자	13 ( 0.5)	5 ( 0.4)	7 ( 0.6)	-
일시대체근로자	593 ( 22.7)	344 ( 29.5)	248 ( 17.2)	666 ( 4.6)
일용근로자	544 ( 20.8)	175 ( 15.0)	369 ( 25.5)	1,072 ( 7.3)
시간제근로자	591 ( 22.6)	269 ( 23.0)	321 ( 22.3)	-
계약직 근로자	-	-	-	3,597 ( 24.7)
한시적 근로자				

주 : 두 조사에서 나타난 근로자수 차이는 사업체근로실태조사의 조사제외업종에 기인한 차이일 수 있음.

자료 : 노동부,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원자료, 200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 2004.

1) 「사업체근로실태조사」는 2004년 6월 급여계산기간을 조사기준으로 하여 사업체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사업체형태, 경영형태, 노조조직, 고용형태별 근로자수 등, 근로자 조사는 고용형태, 인적사항, 근무형태, 경력, 직종, 근로일수, 근로시간, 임금, 사회보험, 부가급부, 노조 등의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중 비정규근로자는 2,616천명(25.8%)으로 나타났다. 비정규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분포는 일용근로자 593천명(22.7%, 5.8%), 계약직 근로자 591천명(22.6%, 5.8%), 시간제근로자 544천명(20.8%, 5.4%), 독립도급종사자 453천명(17.3%, 4.5%), 용역근로자 211천명(8.1%, 2.1%), 외국인근로자 163천명(6.2%, 1.6%), 파견근로자 39천명(1.5%, 0.4%), 일시대체근로자 13천명(0.5%, 0.1%), 재택가내근무자 8천명(0.3%, 0.1%) 순으로 나타났다.2) 전체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는 3,953천명(38.9%)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6.6%로 남성근로자 중 비정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18.9%)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비정규근로자 중 25.5%가 시간제근로자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독립도급종사자에 22.5%가 종사하고 있어 남성 비정규근로자의 비정규 고용형태별 분포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수준을 보면, 정규근로자는 2,068천원, 비정규근로자는 1,145천원으로 나타나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수준이 55.4%인 것으로 분석되어 2004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나타난 65.0%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

<표 2>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임금수준

(단위 : 천원)

		사업체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월평균 임금총액	정기급여	
전 체		1,830.4	1,552.8	1,542.3
정규근로자		2,068.1	1,704.8	1,771.5
비 정 규 근 로 자	소 계	1,145.2 (55.4)	1,114.5 ( 65.4)	1,151.8 (65.0)
	외국인근로자	1,277.0 (61.7)	1,234.9 ( 72.4)	-
	독립도급종사자	1,817.4 (87.9)	1,816.4 (106.5)	1,390.5 (78.5)
	재택/가내근무자	839.3 (40.6)	777.6 ( 45.6)	563.7 (31.8)
	파견근로자	1,160.5 (56.1)	1,098.7 ( 64.4)	1,271.5 (71.8)
	용역근로자	980.6 (47.4)	937.5 ( 55.0)	922.4 (52.1)
	일시대체근로자	846.8 (40.9)	844.6 ( 49.5)	-
	일용근로자	1,027.4 (49.7)	1,022.1 ( 60.0)	836.6 (47.2)
	시간제근로자	539.9 (26.1)	535.1 ( 31.4)	539.0 (30.4)
	계약직 근로자	1,338.0 (64.7)	1,244.8 ( 73.0)	-
한시적 근로자	-	-	1,231.7 (69.5)	

주 : 월평균 임금총액의 개념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최근 3개월의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로 정의함에 따라 사업체 근로실태조사의 월평균 임금총액(2004년 6월 정액급여+2004년 6월 초과급여+(전년도 연간특별급여÷12))의 개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노동부,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원자료, 200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 2004.

2) ( )안의 수치는 비정규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시한 것이다.

다. 특히 비정규직 중 독립도급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 대비 87.9%로 정규직과 임금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기급여는 오히려 정규직보다 6.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정규-비정규근로자간의 임금격차

2004년 「사업체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이 55.4% 정도이며, 특히 비정규 고용형태 중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이 26.1%로 가장 낮게 나타나 노동시장에서 정규-비정규근로자간 임금격차가 비정규 고용형태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규-비정규근로자간의 임금격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한 임금함수를 회귀분석하고자 한다. 임금함수 (1)에서 ‘ $\beta$ ’의 추정치는 모든 결정요인에 대한 고용형태별 계수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고용형태별 실증적 임금차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는 시간당 임금의 로그값, 설명변수는 성, 연령, 학력, 혼인상태, 근속년수, 경력년수, 직종, 업종, 사업체규모, 지역, 노동조합 존재여부 등 개별근로자의 인적특성과 사업체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ln W = \alpha X + \beta E + \epsilon \quad (1)$$

$X$ :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성된 설명변수벡터(인적특성, 사업체특성 등)

$E$ : 비정규직 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수

개별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표 3), 비정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근로자에 비해 6.5~6.6%(독립도급종사자 제외시 9.7~9.9%) 정도 낮게 나타나 고용형태별 실증적 임금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비정규근로의 다양한 고용형태별로 임금격차를 보면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이 재택(가내)근무자 27.9%, 일시대체근로자 26.8%, 용역근로자 20.0%, 파견근로자 19.5%, 계약직 근로자 11.6%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근로자 중 독립도급종사자와 일용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시간당 임금수준이 각각 31.3%, 7.3%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실적으로 독립도급종사자의 대다수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개별근로자의 인적특성별로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

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20.6~21.1%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 임금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근로자의 혼인상태별 임금격차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미혼 근로자는 기혼근로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4.8~5.3% 정도 낮고, 특히 남성기혼자에 비해 여성기혼자의 임금수준이 25.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기혼자들의 일자리가 여성기혼자들에 비해 고임금 전문직종(임원·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여성기혼자들은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입을 하더라도 낮은 임금수준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체특성별로 임금격차 현황을 보면, 연령, 직종별로는 전문직종을 제외한 모든 직종(임원·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이 사무직에 비해 임금수준이 5.0~35.7%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0.9~4.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의 노동조합 유무별 임금격차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조가 있는 사업체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3.9~4.1%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성별 분리표본을 가지고 임금식을 추정한 결과(표 4)를 보면, 여성근로자의 정규·비정규근로자간의 임금격차가 10.2%로 나타나 남성의 4.7%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어 여성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실증적 임금차별이 남성에 비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독립도급종사자의 임금수준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각각 27.7%, 30.9%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은 재택가내근로자(33.5%), 일시대체근로자(22.8%), 용역근로자(22.0%), 파견근로자(21.6%) 순으로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일시대체근로자(30.4%), 재택가내근로자(25.2%), 파견근로자(22.8%), 용역근로자(20.9%) 순으로 나타나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분석된 결과를 통해 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간의 임금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생산성 특성에 대해 지불되는 고용형태별 가격이 동일하다는 가정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다음식 (2)를 통해 고용형태별 임금식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ln W_k = \alpha_k X_k + \varepsilon_k \quad (2)$$

$k=r$ (정규근로),  $k=c$ (비정규근로)

<표 5>을 보면, 성별 정규·비정규근로자 모두 연령과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임금이 상승하다가 전환점에 이른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속년수가 1년 증가함에 따라 여성 정규근로자의 임금상승은 3.7%인 반면, 남성 정규근로자는 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상승은 정규근로자에 비해

<표 3> 임금식의 추정치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상수항	7.746 (0.009) ***	7.744 (0.010) ***	7.733 (0.009) ***
고용형태(비정규=1)	-0.066 (0.002) ***	-0.065 (0.002) ***	
고용형태(정규직 기준)			
외국인근로자			-0.096 (0.006) ***
독립도급종사자			0.313 (0.005) ***
재택가내근무자			-0.279 (0.023) ***
파견근로자			-0.195 (0.007) ***
용역근로자			-0.200 (0.004) ***
일시대체근로자			-0.268 (0.019) ***
일용근로자			0.073 (0.004) ***
시간제근로자			-0.040 (0.004) ***
계약직 근로자			-0.116 (0.002) ***
성별(여성=1)	-0.206 (0.001) ***		-0.211 (0.001) ***
혼인상태(기혼=1)	0.053 (0.002) ***		0.048 (0.002) ***
혼인상태(남성기혼=1)			
여성기혼		-0.254 (0.003) ***	
여성미혼		-0.229 (0.002) ***	
남성미혼		-0.094 (0.002) ***	
연령	0.043 (0.000) ***	0.046 (0.000) ***	0.040 (0.000) ***
연령제곱	-0.0005 (0.000) ***	-0.0006 (0.000) ***	-0.0005 (0.000) ***
학력수준(고졸=1)			
중졸	-0.103 (0.002) ***	-0.098 (0.002) ***	-0.096 (0.002) ***
초대졸	0.064 (0.002) ***	0.061 (0.002) ***	0.067 (0.002) ***
대졸 이상	0.296 (0.002) ***	0.296 (0.002) ***	0.294 (0.002) ***
근속년수	0.035 (0.000) ***	0.034 (0.000) ***	0.034 (0.000) ***
근속년수제곱	-0.0003 (0.000) ***	-0.0003 (0.000) ***	-0.0003 (0.000) ***
경력년수(1년 미만 기준)			
1 ~ 2년 미만	0.101 (0.002) ***	0.100 (0.002) ***	0.104 (0.002) ***
2 ~ 4년 미만	0.167 (0.002) ***	0.165 (0.002) ***	0.169 (0.002) ***
4 ~ 5년 미만	0.199 (0.004) ***	0.196 (0.004) ***	0.200 (0.004) ***
5 ~ 10년 미만	0.234 (0.003) ***	0.230 (0.003) ***	0.236 (0.003) ***
10년 이상	0.282 (0.003) ***	0.275 (0.003) ***	0.286 (0.003) ***
직종(사무직 기준)			
임원전문가	0.237 (0.002) ***	0.227 (0.002) ***	0.233 (0.002) ***
기술공준전문가	0.031 (0.002) ***	0.033 (0.002) ***	0.022 (0.002) ***
서비스직	-0.142 (0.003) ***	-0.133 (0.003) ***	-0.150 (0.003) ***
판매직	-0.059 (0.004) ***	-0.050 (0.004) ***	-0.139 (0.004) ***
농림어업	-0.106 (0.009) ***	-0.100 (0.009) ***	-0.124 (0.009) ***
기능원 등	-0.132 (0.003) ***	-0.129 (0.003) ***	-0.139 (0.003) ***
장치조립	-0.238 (0.002) ***	-0.237 (0.002) ***	-0.246 (0.002) ***
단순노무직	-0.357 (0.003) ***	-0.348 (0.003) ***	-0.350 (0.003) ***
산업(제조업 기준)			
전기가스업	-0.003 (0.004)	-0.006 (0.004)	0.001 (0.004)
건설업	-0.035 (0.004) ***	-0.041 (0.004) ***	-0.039 (0.004) ***
서비스업	-0.012 (0.002) ***	-0.015 (0.002) ***	-0.009 (0.002) ***
기타	0.097 (0.004) ***	0.090 (0.004) ***	0.095 (0.004) ***
지역(서울=1)	0.127 (0.001) ***	0.127 (0.001) ***	0.127 (0.001) ***
노조유무(노조=1)	0.041 (0.002) ***	0.039 (0.002) ***	0.039 (0.002) ***
표본수	482,772	482,772	482,772
R <sup>2</sup>	0.636	0.638	0.643
F-검정값	24,119.2 ***	23,583.6 ***	20,242.1 ***

주: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임금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그 효과는 사업체규모에 따라 2~33% 수준임.

\*\*\*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노동부,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원자료, 2004.

<표 4> 성별 임금식의 추정치

변수	여 성		남 성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상수항	7.946 (0.013) ***	8.004 (0.013) ***	7.520 (0.013) ***	7.531 (0.012) ***
고용형태(비정규=1)	-0.102 (0.003) ***		-0.047 (0.003) ***	
고용형태(정규직 기준)				
외국인근로자		-0.102 (0.010) ***		-0.100 (0.007) ***
독립도급종사자		0.309 (0.006) ***		0.277 (0.008) ***
재택가내근무자		-0.252 (0.026) ***		-0.335 (0.043) ***
파견근로자		-0.228 (0.008) ***		-0.216 (0.011) ***
용역근로자		-0.209 (0.006) ***		-0.220 (0.005) ***
일시대체근로자		-0.304 (0.022) ***		-0.228 (0.032) ***
일용근로자		-0.052 (0.006) ***		0.182 (0.006) ***
시간제근로자		-0.099 (0.005) ***		0.041 (0.007) ***
계약직 근로자		-0.160 (0.003) ***		-0.089 (0.003) ***
연령	0.026 (0.001) ***	0.024 (0.001) ***	0.059 (0.001) ***	0.058 (0.001) ***
연령제곱	-0.0003 (0.000) ***	-0.0003 (0.000) ***	-0.001 (0.000) ***	-0.001 (0.000) ***
학력수준(고졸=1)				
중졸	-0.142 (0.004) ***	-0.123 (0.004) ***	-0.077 (0.003) ***	-0.078 (0.003) ***
초대졸	0.040 (0.003) ***	0.041 (0.003) ***	0.083 (0.003) ***	0.088 (0.003) ***
대졸 이상	0.305 (0.003) ***	0.298 (0.003) ***	0.295 (0.002) ***	0.295 (0.002) ***
혼인상태(기혼=1)	0.016 (0.003) ***	0.011 (0.003) ***	0.070 (0.002) ***	0.067 (0.002) ***
근속년수	0.041 (0.001) ***	0.037 (0.001) ***	0.031 (0.000) ***	0.031 (0.000) ***
근속년수제곱	-0.0004 (0.000) ***	-0.0003 (0.000) ***	-0.0002 (0.000) ***	-0.0002 (0.000) ***
경력년수(1년 미만 기준)				
1~2년 미만	0.097 (0.003) ***	0.094 (0.003) ***	0.099 (0.003) ***	0.109 (0.003) ***
2~4년 미만	0.156 (0.003) ***	0.151 (0.003) ***	0.169 (0.003) ***	0.178 (0.003) ***
4~5년 미만	0.193 (0.006) ***	0.191 (0.005) ***	0.192 (0.005) ***	0.198 (0.005) ***
5~10년 미만	0.192 (0.005) ***	0.192 (0.004) ***	0.245 (0.003) ***	0.252 (0.003) ***
10년 이상	0.211 (0.006) ***	0.217 (0.005) ***	0.289 (0.004) ***	0.295 (0.004) ***
직종(사무직 기준)				
임원·전문가	0.187 (0.003) ***	0.174 (0.003) ***	0.262 (0.003) ***	0.261 (0.003) ***
기술공·준전문가	0.026 (0.004) ***	-0.003 (0.003)	0.036 (0.002) ***	0.036 (0.002) ***
서비스직	-0.077 (0.004) ***	-0.097 (0.004) ***	-0.197 (0.005) ***	-0.196 (0.005) ***
판매직	-0.020 (0.005)	-0.137 (0.005) ***	-0.076 (0.006) ***	-0.122 (0.006) ***
농림어업	-0.120 (0.021) ***	-0.152 (0.021) ***	-0.074 (0.011) ***	-0.085 (0.011) ***
기능원 등	-0.258 (0.006) ***	-0.276 (0.006) ***	-0.096 (0.003) ***	-0.100 (0.003) ***
장치조립	-0.181 (0.005) ***	-0.202 (0.005) ***	-0.241 (0.003) ***	-0.242 (0.003) ***
단순노무직	-0.256 (0.005) ***	-0.258 (0.005) ***	-0.383 (0.004) ***	-0.374 (0.004) ***
산업(제조업 기준)				
전기가공업	-0.002 (0.010)	0.005 (0.010)	-0.005 (0.004)	-0.005 (0.004)
건설업	-0.028 (0.013)	-0.027 (0.013)	-0.054 (0.005) ***	-0.063 (0.005) ***
서비스업	0.047 (0.003) ***	0.050 (0.003) ***	-0.035 (0.002) ***	-0.032 (0.002) ***
기타	0.008 (0.011)	0.013 (0.011)	0.095 (0.005) ***	0.087 (0.005) ***
지역(서울=1)	0.139 (0.002) ***	0.143 (0.002) ***	0.123 (0.003) ***	0.119 (0.002) ***
노조유무(노조=1)	0.088 (0.003) ***	0.078 (0.002) ***	0.011 (0.002) ***	0.013 (0.002) ***
표본수	160,830	160,830	321,942	321,942
R <sup>2</sup>	0.533	0.550	0.627	0.633
F-검정값	5,400.1 ***	4,669.3 ***	15,930.3 ***	13,232.3 ***

주: \*\*\*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노동부,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원자료, 2004.

<표 5> 성별·고용형태별 임금식의 추정치

변 수	여 성		남 성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상수항	7.708 (0.016) ***	7.793 (0.025) ***	7.429 (0.014) ***	7.364 (0.029) ***
연령	0.025 (0.001) ***	0.028 (0.001) ***	0.053 (0.001) ***	0.068 (0.001) ***
연령제곱	-0.0003 (0.000) ***	-0.0003 (0.000) ***	-0.0006 (0.000) ***	-0.0008 (0.000) ***
학력수준(고졸=1)				
중졸	-0.156 (0.005) ***	-0.107 (0.008) ***	-0.078 (0.003) ***	-0.080 (0.008) ***
초대졸	0.035 (0.003) ***	0.078 (0.006) ***	0.094 (0.003) ***	0.016 (0.008)
대졸 이상	0.307 (0.003) ***	0.249 (0.006) ***	0.294 (0.002) ***	0.247 (0.008) ***
혼인여부(기혼=1)	0.018 (0.003) ***	-0.013 (0.006)	0.064 (0.002) ***	0.090 (0.007) ***
근속년수	0.037 (0.001) ***	0.031 (0.002) ***	0.031 (0.000) ***	0.031 (0.002) ***
근속년수제곱	-0.0004 (0.000) ***	-0.0005 (0.000)	-0.0002 (0.000) ***	-0.0004 (0.000) ***
경력년수(1년 미만 기준)				
1~2년 미만	0.128 (0.004) ***	0.085 (0.006) ***	0.138 (0.004) ***	0.016 (0.007)
2~4년 미만	0.181 (0.004) ***	0.165 (0.006) ***	0.202 (0.003) ***	0.098 (0.008) ***
4~5년 미만	0.228 (0.006) ***	0.175 (0.012) ***	0.224 (0.005) ***	0.119 (0.014) ***
5~10년 미만	0.222 (0.005) ***	0.171 (0.011) ***	0.284 (0.004) ***	0.132 (0.011) ***
10년 이상	0.253 (0.006) ***	0.141 (0.012) ***	0.329 (0.004) ***	0.205 (0.010) ***
직종(사무직 기준)				
임원·전문가	0.094 (0.003) ***	0.429 (0.008) ***	0.249 (0.003) ***	0.430 (0.011) ***
기술공·준전문가	-0.024 (0.004) ***	0.100 (0.008) ***	0.036 (0.002) ***	0.040 (0.010) ***
서비스직	-0.145 (0.005) ***	-0.035 (0.007) ***	-0.187 (0.005) ***	-0.221 (0.012) ***
판매직	-0.117 (0.006) ***	0.036 (0.008) ***	-0.036 (0.006) ***	-0.184 (0.013) ***
농림어업	-0.227 (0.033) ***	-0.103 (0.030) ***	-0.070 (0.012) ***	-0.109 (0.027) ***
기능원 등	-0.320 (0.006) ***	-0.144 (0.016) ***	-0.109 (0.003) ***	-0.063 (0.012) ***
장치조립	-0.226 (0.005) ***	-0.159 (0.013) ***	-0.256 (0.003) ***	-0.151 (0.010) ***
단순노무직	-0.314 (0.005) ***	-0.226 (0.008) ***	-0.392 (0.004) ***	-0.390 (0.010) ***
산업(제조업 기준)				
전기가스업	-0.019 (0.011)	0.012 (0.021)	-0.007 (0.004)	0.101 (0.025) ***
건설업	-0.061 (0.014) ***	0.065 (0.030)	-0.090 (0.005) ***	0.221 (0.017) ***
서비스업	0.075 (0.003) ***	0.001 (0.007)	-0.025 (0.002) ***	-0.048 (0.007)
기타	0.010 (0.012)	-0.007 (0.021)	0.093 (0.005) ***	0.137 (0.016) ***
사업체규모(5인 미만 기준)				
5~10인 미만	0.095 (0.006) ***	0.086 (0.010) ***	0.063 (0.006) ***	-0.018 (0.011)
10~29인 미만	0.183 (0.006) ***	0.032 (0.008) ***	0.154 (0.005) ***	0.017 (0.009)
30~99인 미만	0.227 (0.005) ***	0.134 (0.008) ***	0.188 (0.005) ***	-0.044 (0.009) ***
100~299인 미만	0.294 (0.005) ***	0.041 (0.007) ***	0.239 (0.005) ***	0.001 (0.009)
300~499인 미만	0.337 (0.006) ***	-0.019 (0.009)	0.336 (0.005) ***	0.006 (0.012)
500인 이상	0.482 (0.006) ***	0.098 (0.007) ***	0.436 (0.005) ***	0.032 (0.010) ***
지역(서울=1)	0.154 (0.002) ***	0.097 (0.004) ***	0.115 (0.002) ***	0.154 (0.006) ***
노조유무(노조=1)	0.089 (0.003) ***	0.081 (0.005) ***	0.009 (0.002)	0.055 (0.006) ***
표본수	108,629	52,201	276,076	45,866
R <sup>2</sup>	0.613	0.317	0.620	0.438
F-검정값	5,214.4 ***	732.0 ***	13,643.5 ***	1,081.0 ***

주: \*\*\*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노동부,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원자료, 2004.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규근로자의 경우 대졸 이상 학력수준을 가진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고졸 학력수준을 가진 근로자에 비해 여성은 30.7%, 남성은 29.4%로 나타나 비정규근로자의 24.9%, 24.7%보다 학력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근로자의 학력별 임금격차가 정규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고학력자가 낮은 임금을 받고서라도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근로자의 직종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고용형태별로 유사하지만 그 크기는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업별 임금격차를 보면, 여성 정규근로자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종 종사자의 임금수준이 7.5%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종 종사자의 임금수준이 2.5%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 IV. 정규-비정규근로간의 임금분해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고용형태별로 개별근로자의 인적특성과 사업체의 특성이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부터는 좀더 구체적으로 정규-비정규근로간의 임금격차를 Oaxaca방식을 적용하여 생산성 특성에 의한 부문과 가격효과에 의한 부문으로 분해하고자 한다.<sup>3)</sup> 이를 통해 정규-비정규근로간에 존재하는 생산성 격차에 의한 임금차이를 분석함과 동시에 동일한 생산성 특성에 대하여 얼마나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ln W_r - \ln W_c = \beta_r (X_r - X_c) + X_c (\beta_r - \beta_c) \quad (3)$$

[ 생산성 ]                      [ 차별 ]

$W_r, W_c$  : 고용형태별 시간당 평균임금

$X_r, X_c$  : 고용형태별 설명변수들의 평균값

$\beta_r, \beta_c$  : 고용형태별 추정계수

3) Oaxaca, Ronald,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3), 1973.

식 (3)에서 첫 항은 생산성 격차가 임금에 미치는 생산성 효과를 의미하고, 둘째 항은 생산성 요인에 대해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가격효과를 의미한다. 즉 후자는 차별적 처우에 따른 임금격차로 순수한 의미의 임금격차이며 차별의 최대치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비정규근로자간의 임금격차를 분해하면(표 6), 시간당 임금격차는 5,888원으로 생산성에 의한 격차는 5,382원(91.4%), 차별적 처우에 의한 격차는 506원(8.6%)으로 나타나 시간당 임금격차 중 차별적 처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여성근로자의 경우 정규-비정규근로자간의 시간당 임금격차는 2,693원이며, 이 중 차별적 처우로 인한 임금격차는 765원(28.4%)으로 나타나 남성의 364원(5.6%)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정규-비정규근로자간 임금격차 분해

	전 체	남 성	여 성
정규근로자 임금	9.284	9.412	8.958
비정규근로자 임금	8.692	8.775	8.619
임금격차	0.5915(100.0)	0.6372(100.0)	0.3387(100.0)
생산성에 의한 격차	0.5407( 91.4)	0.6014( 94.4)	0.2426( 71.6)
차별에 의한 격차	0.0508( 8.6)	0.0358( 5.6)	0.0961( 28.4)

주: 임금은 시간당 임금에 로그를 취한 값임.

성별 임금격차 모형에서 직종분리는 남녀차별의 결과일수도 있으므로 직종을 모형의 설명변수에서 제외하면 차별에 의한 격차는 남성은 10.3%, 여성은 36.5%로 높게 나타남.

자료: 노동부,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원자료, 2004.

<표 7>은 비정규근로의 다양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이다. 비정규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중 차별적 처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고용형태는 재택가내근무자로 나타났으며, 일시대체근로자(37.9%), 파견근로자(31.3%), 계약직 근로자(25.1%)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동일한 생산성이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분해

	외국인 근로자	재택가내 근무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일시대체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정규근로				9.2840			
비정규근로	8.5300	8.7090	8.6310	8.3690	8.5840	8.6540	8.8140
임금격차	0.7535 (100.0)	0.5752 (100.0)	0.6517 (100.0)	0.9149 (100.0)	0.6992 (100.0)	0.6297 (100.0)	0.4696 (100.0)
생산성에 의한 격차	0.6876 ( 91.3)	0.3007 ( 52.3)	0.4484 ( 68.7)	0.7383 ( 80.7)	0.4341 ( 62.1)	0.6037 ( 95.9)	0.3520 ( 74.9)
차별에 의한 격차	0.0659 ( 8.7)	0.2745 ( 47.7)	0.2042 ( 31.3)	0.1766 ( 19.3)	0.2651 ( 37.9)	0.0260 ( 4.1)	0.1176 ( 25.1)

주: 독립도급종사자와 일용근로자는 유효한 결과치를 얻지 못함.  
 자료: 노동부,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원자료, 2004.

앞에서 파악한 정규-비정규근로자간의 성별, 비정규근로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생산성에 의한 격차와 차별에 의한 격차로 분해한 결과, 결과적으로 정규-비정규근로자간 임금격차 중 차별에 의한 격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더라도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은 59.9%(여성근로자는 79.4%, 남성근로자는 59.2%)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V. 결론

본고는 우리나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과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성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동일한 생산성 아래 고용형태에 따라 상이한 가격이 지급되고 있다면 단순히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근로자에 비해 6.5~6.6%(독립도급종사자 제외시 9.7~9.9%) 정도 낮게 나타나 고용형태별 실증적 임금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근로자의 경우 남성근로자에 비해 정규-비정규근로자간의 임금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규-비정규근로자간의 성별, 비정규근로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생산성에 의한 격차와 차별에 의한 격차로 분해한 결과, 정규-비정규근로자간 임금격차 중 차별에 의한 격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더라도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은 59.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생산성을 지닌 정규-비정규근로자간의 임금격차는 상당한 수준임을 본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제는 정규-비정규근로자간의 임금격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차별을 정책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KLI**

#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사적이전

성재민\*

## I. 머리말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는 가구별로 조사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누어 질문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전소득 중에서도 「친척친지보조금」이라는 세부항목으로 조사되고 있는 사적이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적이전, 특히 유산의 상속이 아닌 살아있는 세대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의 흐름은 개별 소비주체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외국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또한 이러한 사적이전이 추후 어떤 보상을 바라는 교환(exchange) 동기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올 보상과는 상관없이 아끼는 마음에 이타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도 함께 연구되어 왔다. 이와 같은 동기의 분석은 공적이전제도가 확충될 경우 사적이전의 흐름이 바뀐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아왔다.

본고에서는 먼저 KLIPS에서 파악되는 사적이전소득의 규모와 추이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적이전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어떤 위치와 의미를 갖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계층별로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을 분석하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사적이전을 받았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사적이전의 동기가 무엇인지 분석해 볼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노동패널팀 책임연구원(seongjm@kli.re.kr).